

보도자료

2024. 5. 16.(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황태욱 센터장 (061) 350-1601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성과관리팀 최근수 주임 (061) 350-1395

2024년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 확대**- 측정 규모 확대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다양한 생활·산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서비스** 규모를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올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는 사회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다중이용시설,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약 50% 늘어난 5,800여 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 ('22년도) 2,441곳 측정 → ('23년도) 3,897곳 측정 → ('24년도) 5,800곳 예정
- ☐ KCA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전자파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관공서, 스마트공장 등 기존 측정 대상 외에 올해 새롭게 지역 명소·축제·관광지, 데이터센터 설치지역 등 국민의 관심 지역으로 측정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은 전문 측정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전자파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일주일 이상 설치하고 전자파 노출량을 분석하며 필요시 정밀 측정과 전자파 저감 컨설팅·전자파 안전 교육을 지원한다.
- ☐ 스마트공장·캠퍼스 등 다수의 무선설비와 응용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시설이나 지자체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내 이용자 밀집도,

전자파 발생기기 위치 등을 고려한 전자파 환경 종합 측정을 통해 전자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전자파 저감 컨설팅을 지원한다.

- 아울러, 이동통신 기지국이 다수 설치된 대단지 아파트 및 인구 밀집 지역은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자파 측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파 신호등은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세기를 실시간 측정·분석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3색 신호등 개념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LED 화면에 파란색 이미지가 표출되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0% 미만(1등급 수준)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표시 색	측정값 범위
● (청색)	전자파 1등급 수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0% 미만)
● (황색)	전자파 2등급 수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50~100% 미만)
● (적색)	전자파 주의·경고 등급 수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00% 초과)

<전자파 신호등 사진 및 표시 기준>

- 측정을 희망하는 시설은 연중 상시 KCA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 (<https://emf.kca.kr>)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다.
- 이상훈 KCA 원장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맞는 맞춤형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국민이 전자파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